

글자크기 + -

# "금융권 성과제, 부실대출 키운다"

미국서 실증적 연구, 부도를 높아 ... 영국 '불완전판매 우려' 연구 진행

2016-01-22 10:38:56 게재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성과주의' 도입이 올해 금융권에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금융회사들의 성과주의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며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권의 인센티브 확대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2012년 전신인 FSA 시절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도입 자체를 안할 수는 없지만 검증과 다각도의 방법을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성과급 도입에 따른 대출승인을 비교 \*자료:미국경제연구소 조사보고서(2012.8)

구분		고정급		성과급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대출 심사 단계	심사건수	6920	7564	7996	7788
	승인건수	2192	2744	2548	3680
	승인율	30.6%	35.7%	32.2%	46.6%
대출 승인 이후	대출희망금액 평균(달러)	30만2074	30만3082	30만2966	30만2224
	대출승인금액 평균(달러)	22만4614	25만3219	21만6048	30만1004
	12개월내 부도건수	91	119	107	192
	12개월내 부도율	4.2%	4.3%	4.2%	5.2%

\*2005년에 성과급을 지급받은 대출담당자도 2004년까지는 고정급 지급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미 전미경제연구소(NBER) 조사보고서에는 '대출담당자의 인센티브가 느슨한 대출 기준으로 이어지나?'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수밋 아가랄(Sumit agarwal) 시카고 연방준비은행(FRB) 연구원과 이차크 벤 데이비드(Itzhak Ben David)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가 공동으로 쓴 이 논문은 대출담당자에 대한 성과급제도 도입이 부실대출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논문은 미국의 한 대형 상업은행이 대출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고정급에서 성과급으로 바꾸었을 때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했다. 은행 경영진들이 뉴잉글랜드 지역본부의 중소기업대출 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예비시험)를 실시한 자료가 바탕이 됐다.

### 오피니언



[내일신문] 1948년 건국론은...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중국 상해시 프랑스 조계 내의 한 이층집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다. 국내를 비롯해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유

- [민병욱 칼럼] 물범치의 정치 유
- [김학순의 세상툰아보기] 젊은이를 위한 ... 유
- [경제시평]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 유
- [정치시평] 정당이 계파갈등에 대처하는 ... 유
- [신문로] 새로운 국면의 중동 분쟁 유

### 피플

- [조길형 구청장] "주민의 단결된 힘, 가..."
- [김성환 구청장] "생활속 작은 일부터 실..."
- [범무법민 에이치스 이형찬 변호사] "반..."
- [박춘희 구청장] "낮은 자세로 몸 기울여..."
- [신연희 구청장] 관광활성화 위해 정부 ...
- [김수영 구청장] "작은 것 하나도 주민참..."

### 내일스페셜

-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자
- [해외자원개발, 10년 뒤를 내다보자 ①] ...
- ['파리 기후변화 회의' 현장을 가다 ③] "..."
- [3만불시대 국민축산, 2030이 연다 | ⑤ 네...]
- [남준기 기자의 낙동강편지 | ④ 1급수에...]
- [내일신문-디오피니언 11월 정례여론조... 유]

### 많이 본 뉴스

- 군부대가 민간인 토지 35년 무상사용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방만경영' 드러나
- 성남시 '청년배당' 첫날 5000여명 수령
- "월가 은행들 자유가 조장 ... 러시아 목죄는 ..."
- 기아차, 신형 모하비 2월 출시
- 해경 직원을 "세종시 가기 싫어요"

### 뉴스플러스



왜 중소기업 적합업... 박근혜 대통령 2016년 ...

시민과 소통하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국가인증도시 의정부

130여명의 대출담당자들이 24개월간 취급한 3만건의 중소기업대출 심사자료를 보수 체계 별로 비교했더니 성과급 대출담당자의 대출승인율이 고정급 대출담당자에 비해 약 31% 증가했다. 대출승인규모도 약 14.9% 컸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약 2.4%p 높았다. 부도율은 28%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출승인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회색지대 차주에 대한 대출승인이 현저히 증가했다. 성과급 수령자의 대출승인율은 매월 하반기에 상반기 보다 2.9%p 증가했는데 연구자들은 월별 성과급을 수령하기 위해 월말에 승인금액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급되기 어려웠을 대출에서 집중적으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성과급을 지급받은 담당자가 승인한 대출 중 대출금액이 과다한 대출에서 차주의 파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영업실적만을 기준으로 한 성과주의는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다"며 "과거 동양사태나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ELS 투자자들 모두 금융회사의 실적주의가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영국 FCA도 지난해와 올해 대출담당자의 인센티브 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FCA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인센티브 제도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2012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금융회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높은 판매 실적을 요구함에 따라 판매직원들은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FCA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 금융회사들이 인센티브 제도에 내재된 불완전 판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복잡해 경영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 경영진의 보너스가 판매직원의 실적에 따라 결정돼 이해상충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FCA의 전신인 FSA는 지난 2013년 로이드은행이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판매직원의 부실판매를 유도했다며 2800만파운드(한화 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70만명의 피해 고객에게는 1억파운드(한화 약 1719억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또한 경영진에게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환수하는 명령도 내렸다.

유럽은행감독원(EBA)은 은행들의 보너스 지급을 규제하고 있다. 보너스가 기본급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대형은행은 보너스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예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유럽지역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은 대출담당자들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은행 실적과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이 있지만 실적 부진에 따른 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1999년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를 맞았다는 분석이 많다"며 "미국과 유럽이 금융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데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스크랩
 

 글자크기 + -

[내일신문 홈으로](#)    [이경기기자 기사더 보기](#)    [목록](#)   [뒤로](#)   [맨위로](#)

[주요기사]

- 의사·변호사 등 858명 지난해 회생신...
"노동개혁 속전속결 유혹 벗어나야"
- [형님 동생하던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유
[야권재편 속 요동치는 호남민심 | ① ... 유
- 더민주 23.9% 국민의당 21.6% 유
인건비 2116억 한은 경기에측력 매년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안내](#)   [찾아오시는 길](#)   [사내연락처](#)   [사이트맵](#)



(주)내일신문 | 대표 장명국 | 111-81-1985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3 (신문로2가) ☎ 02-2287-2300 | 웹사이트 운영대행사 : (주)내일이비즈 101-86-52538  
 Copyright ©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